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난 주 (8/30/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225.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9월 6일 (672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형선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6:6-10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그러므로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9/13/26	9/20/26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율법의 제사로는 결코 온전히 죄를 씻을 수 없었던 우리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 한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큰 은혜인지 우리는 전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 아들을 혈연관계에서 끊어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미워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거가 면제 아들을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다시 맞아 주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아들의 고백입니다.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상기 시켜 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결하며 순결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 자는 더 이상 과거의 과오를 반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못났어도, 저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정죄의 시선이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 보고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는 긍휼의 시선과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은 결국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임을 기억한다면, 결코 100데나리온 빚진자를 멸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나타나게 될 열매와 공동체의 삶에 나타나게 될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들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